

노·사 화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무재해 26년

—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

취재 | 최중덕 기자

WHO 공인 국제안전도시,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아닌가 싶다.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우수한 안전관리로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선진화된 기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07년 10월에 무재해 19배수를 달성한 남제주화력발전소의 무재해 시작은 26년 전인 1981년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무재해운동이 79년부터 시작된 점을 볼 때 남제주화력발전소의 무재해는 우리나라 안전 역사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기록한 무재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다. 매년 여러 건의 공사가 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형태 또한 각기 달라 위험요소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작업 특수성과 환경에서 무재해 기록은 가히 일상적인 기록으로만 볼 수 없다.

지난해 발전설비 3, 4호기가 2년여의 공사기간을 통해 단한건의 사고 없이 준공을 하였고 제주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 매일 실시하는 공정회의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발전소 내의 건설 안전을 별도 관리 하는 전문적인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을 이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밖에도 해빙기, 여름철 폭서기, 연말연시 등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계몽활동을 시기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한 순간의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제주화력발전소의 안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이러한 관심은 직원 180명이 종사하는 이곳에 연간 순수 안전관리를 위한 투



조사공 소장

무재해 19배수를 달성하고 20배수 달성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애쓰고 있을 직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무재해 신기록을 연신 기록하고 있는 우리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어느 개인 한 사람만의 열정으로 이룩된 것이 아닙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모여 이룩된 것입니다.

특히, 무재해 19수배는 지난 26년간 재해 없는 안전한 남제주화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선배님들의 뜻과, 그 뜻을 계승하여 만들어낸 결과라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의 안전경영 방침은 “선진화된 안전문화 구현”입니다. 우리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앞으로 다가올 무재해 20배수를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에 맞춰 우리의 안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는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운도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결코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낫은 안전한 남제주화력발전소를 위해 우리 남제주화력발전소 가족 모두는 오늘도 새롭게 전진할 것입니다.



강경택 부장

태안 기름 유출사고 및 국보 1호 송례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직원과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위험개소 제거에 적극 노력하며, 인명을 중시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시스템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전소가 앞으로도 모범적인 무재해 사업장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동훈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로서 무재해 19배수 달성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커다란 선물은 모든 직원에게 기쁨이며, 모든 분들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안전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절대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 무재해입니다.

금년 8월이면 무재해 20배수를 달성이 예상되는 달입니다. 우리 남제주화력발전소 모두는 무재해 100일 운동 등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기필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도내 안전의 역사를 우리가 써 내려갈 것입니다.



자 예산만 2억이 넘는 것에서 짐작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측과 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이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 만든 안전한 남제주화력발전소의 바탕에는 이러한 관심이 있었다.

최근 남제주화력발전소에는 선진안전문화 구현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얼마 전 전사적으로 실시한 “안전모 사랑 운동”도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표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를 닦고, 손질하며, 노후한 보호구는 교체해 주는 행사로, 보호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외에 행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 안전관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선의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안전시설 개선 및 직원들에게 대해 “체험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이곳의 안전은 선진화를 향해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에 만족하지 않는 남제주화력발전소,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더 발전하려는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오는 8월 무재해 20배수를 넘어 영원한 안전한 발전소로 거듭날 기세이다.

